

고물가·고금리 속 광주시 휴직 공무원들 속속 복직

이달 중 56명 복직...지난 한 해 복직 총원 절반 수준

“악화일로 경제 상황이 복직 유인”...인사에도 영향

다양한 이유로 휴직했던 공무원들이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 속 이른 복직을 선택하고 있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육아·질병·가사·자기개발·유학 등 여러 이유로 매년 100명 안팎의 소속 공무원이 휴직하고 있다. 휴직 기간과 휴직 중 급여는 형태 별로 다양하다. 복직

시점은 본인이 결정할 수 있다.

휴직을 마치고 이달 중 복직을 선택한 소속 공무원은 총 5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한 해 복직 총원의 절반 가까이에 이르는 수치다. 지난해 127명, 2021년에는 102명, 2020년에는 95명이 복직했다.

일선 자치구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복구의 경우 지난해 1월 인사 시점 26명이었던 복직 인원이 올해는 39명으로 늘었다.

올 초 복직 인원이 유독 많은 것은 경기침체 속 가파른 물가 상승과 높은 금리에 따른 경제적 부담 등 사회 전반적 경제 상황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가정사로 휴직 중인 공무원 A(46)씨는 “아파트 대출이자가 무섭게 느껴질 정도로 올랐다. 한 달 생활비 역시 마찬가지로”라며 “혼자서 가정 경제를 책임져야 할 상황이다. 내년 1월 복직 계획을 잡고, 오는 7월 복직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늘어나는 복직 인원은 조직 내 인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 광주시의 경우 이번 달 정기인사 중 7급 승진 인원이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었다. 휴직했던 7급 공무원 17명이 한꺼번에 복직했기 때문이다. 반면 모 자치구는 복직 인원이 늘면서 일부 실과의 결원 문제를 해소했다.

시·구 인사 담당 관계자들은 “코로나19가 휴직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제는 악화일로 경제 상황이 복직을 유인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재환기자

광주시, 설 연휴 시립묘지 정상 운영...실내 음식물 섭취 안돼

장사정보시스템 온라인 추모·성묘 가능

광주시는 설 연휴인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시립묘지인 영락·망월공원을 정상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립묘지는 코로나19로 2020년 추석부터 내차례 명절 연휴기간 부분폐쇄했다가 지난해 추석 연휴부터 정상 운영했다.

다만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영락공원 제례실을 폐쇄하고 음식물 섭취도 금지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설 연휴 영락공원 실내 추모관을 방문하지 못하는 성묘객을 위해 온라인 추모·성묘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문자 메시지·현수막·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온라인 추모·성묘는 광주시 홈페이지 또는 장사정보시스템으로 접속하면 헌화와 글 작성, 차례상 꾸미기, 지방 쓰기, 사회관계망(SNS) 공유 등이 가능하다.

송수관 광주시 고령사회정책과장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성묘 인원이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며 “코로나19 감염 인원이 아직도 많은 만큼 연휴기간 전후 분산 방문하거나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를 적극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정승호기자

공군 1전투비행단, 육군 합동 무인항공기 식별·대응 훈련



공군 제1전투비행단(1전비)은 10일 육군과 합동으로 무인항공기 대응 절차 숙달·대테러 임무 수행 향상을 위한 훈련을 벌였다. (사진=공군 1전비 제공)

“공·육 합동 대응태세 강화”

공군 제1전투비행단(공군 1전비)은 10일 육군과 합동으로 무인항공기 대응 절차 숙달·대테러 임무 수행 향상을 위한 훈련을 벌였다.

이번 훈련은 기지 동측 상공에 날고 있는 무인 항공기가 식별된 상황을 가정, 진행됐다.

상황을 접수한 직후 기동전력을 즉각 현장으로 출동시키고, 지역책임부대인 육군 비호 여단에 상황을 전파해 5분 대기조, 정보분석조 출동을 요청했다.

현장에 도착한 기동 전력은 무인기 항로를 추적, 이륙 지점을 확인했다. 이에 1전비 군사경찰대대 특수임무반과 정보분석조가 무인기 발진 예상 지점에 출동하여 무인기 조종사의 신병을 확보했다.

이후 대공 혐의점 파악을 위해 무인기를 회수, 관련 정보를 분석했다.

현장 수색과 경계강화를 위해 지역 책임 부대와 합동 순찰을 하며, 우발 상황에 대비하고 위협 요소 제거를 확인하는 것으로 훈련은 종료됐다.

이번 훈련을 계획한 공군 1전비 기지방호작전과장 류민아 소령은 “이번 훈련을 통해 기지의 공중 위협에 대한 공·육 합동 대응태세를 강화 할 수 있었다”며 “실전적인 훈련을 반복하며 확인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훈련에 참여한 육군 비호여단 정보분석조장 허민희 중위도 “합동 훈련을 통해 대공 방호태세를 강화할 수 있었다. 초동 조치 부대로서 내실있는 훈련과 긴밀한 협조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임형택기자

포스코, 회사채 인기 폭발

발행 규모 최대로 늘린다

3500억원 수요예측서 4조원 몰려

포스코 회사채 인기가 폭발했다. 포스코는 지난 5일 실시한 3500억원 규모 무보증사채 발행 수요예측에서 모집금액의 10배 이상인 3조9700억원이 몰렸다고 밝혔다. 2012년 국내에 회사채 발행 수요예측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대 규모였다. 포스코는 회사채 흥행으로 발행 규모를 최소 신고 물량의 두 배인 최대 7000억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포스코는 채권발행에 앞서 신용평가회사로부터 받은 AA+의 높은 신용등급을 바탕으로 민평금리에 ±30bp(1bp=0.01%)를 가산한 희망 금리밴드를 제시했다. 이번 수요예측에는 연기금·우정사업본부·은행·보험·자산운용·증권 등 여러 기관 투자자와 리테일(소매금융) 수요까지 참여했다.

수요가 몰리면서 포스코의 이번 채권 각 트랜치(만기 구조별 채권)에는 민평금리보다 50~63bp 낮은 수준으로 인입이 진행됐다.

포스코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계속된 급격한 글로벌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심화한 상황에서도 채권발행에 성공한 것은 포스코 채권이 우량채권임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동부채본부김승호기자

전남도, 명절 성수품 건전한 유통질서 강화

오는 20일까지 22개 시군 농산물·가공품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전남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 및 선물 용품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으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나선다.

이번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은 오는 20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추진되며 도내 22개 시·군 농산물·농산가공품 판매업소 및 유통업소, 전통시장 등을 집중 단속 계획이다.

주요 점검품목은 과수·산채류·지역농산물·선물용품 등 설 성수품이며 원산지 미표시, 원산지 거짓표시 및 혼동우려 표시를 집중 점검해 부정 유통행위 근절에 나선다.

원산지 표시는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생산자·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해당 물

품이 어느 국가에서 재배 또는 사육의 과정을 거쳐 제조·가공된 것인지를 표기하는 제도다.

이를 어길 시 원산지 미표시에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원산지 거짓표시 및 혼동우려 표시 행위 적발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전남도는 이번 집중 단속기간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 조치할 예정이다.

강성일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통한 생산자 소득증진과 소



비자 권의증진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며 “믿고 먹을 수 있는 우수한 전남 농수산물을 제수용품과 선물로 구매해 가족 및 친지

들과 즐거운 설 명절을 보내기 바란다”고 말했다.

동부채본부김승호기자

진도군 공고 제2023-27호

진도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결정 변경(안) 주민 등의 의견청취 열람공고

진도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월 11일

진도군 **주민** **청취**

1.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조서

1) 공간시설(공원)

■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신설	A	공원	문화공원	의신면 사천리 80번지 일원	10,178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A	공원	○ 문화공원 신설 A=10,178㎡	○ 진도군 의신면 사천리 일원에 지역문화 및 역사자원을 활용한 남도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조성하여 관광사업 활성화 및 관광역 유치에 위한 준비단계지구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지역주민 및 관광객의 휴식·경사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공원으로 결정하고자 함

2. 열람 기간 : 2023.01.11. ~ 2023.01.25. (15일간)

3. 열람 장소 : 진도군청 관광과 관광개발팀(2층)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도군 관광과 ☎ 061-540-34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nhis.or.kr

“건강보험, 月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으며,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급여 혜택을 받았습니다.

건강보험 혜택 183,961원

월보험료 납부 104,062원

1.77배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구분	보험료부담액	급여액	비율
5분기 고소득층	240,833원	125,531원	1.7배
4분기	125,531원	79,147원	2.1배
3분기	79,147원	48,103원	2.7배
2분기	48,103원	26,697원	5.3배
1분기 저소득층	26,697원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총량 129

국민건강보험
National Health Insurance
고객센터 1577-1000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